

수능일 출근시간 1시간 늦춰진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1월18일 관공서 및 기업체의 출근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진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은 수험생이 시험을 보러 나서는 오전 6~10시에 집중 배치되고 개인택시는 부제 운행이 해제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8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올해 수능은 18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180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1만2400명 감소한 59만8527명이다.

수능 당일 전국 시 지역과 시험

교육부,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보고

관공서·기업체 출근시간 오전 10시

영어 듣기평가 시 항공기 이착륙 조정

장이 설치된 군 지역에서 관공서의 출근 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춰진다. 정부는 기업체에도 출근 시간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고 시험장 인근 군 부대에도 이 시간대에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도권 내 전철과 지하철의 러시 아워 운행 시간도 오전 7~9시에서, 6~10시로 2시간 연장된다. 시내·마을버스는 수험생의 등교시간에

오전 6시~10시에 집중 배치된다. 개인택시는 부제 운영이 해제된다. 각 행정기관은 비상 수송 차량을 확보, 수험생의 주요 이동로에 배치·운영할 계획이다.

영어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후 1시10분부터 1시35분까지는 시험장 주변 소음으로 수험생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항공기 이착륙이 조정된다.

버스나 열차 등 모든 운송 수단도 시험장 주변에서 시행 운행하고 경적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이외 행사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소음도 자제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능 당일 지진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지진 정보 전달 체계를 마련하고 시도교육청에 지진 발생에 따른 대처 요령을 기반으로 대응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수능을 불편없이 무사히 잘 치를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스

美플로리다서 의문의 연쇄살인 공포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의문의 연쇄살인이 벌어져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23일(현지시간) ABC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2주사이 탬파 북동부의 세미놀 하이츠 지역에서 20~32세 사이의 남녀 3명이 누군가가 근거리에서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범인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사망자들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들은 하나같이 버스를 이용한 뒤 홀로 거리를 걷다가 피살됐다. 강도를 당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며칠 간격으로 살인 사건이 벌어지자 주민들은 불안에 빠졌다. 민약에 대비해 경찰이 초등학생들의 등교로를 돕고 있으며, 버스회사들은 노선을 변경해 운영 중이다.

주민들은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살인 사건 현장 인근에 사는 미리 아 말도나도는 7살 아들을 밖에서 놀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겁을 먹었다. 합부로 문을 열어놓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미놀 하이츠는 서민들이 주로 사는 동네로 살인 사건과는 거리가 먼 지역이다. 차량 질도나 청년들 사이 다툼이 일어난 적은 있지만 흉악 범죄는 흔치 않은 곳이었다.

상점을 운영하는 마제트 포카히는 사망자 중 2명이 단골 손님이었다며 "다음은 누구 차례일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근무시간이나 밤 외출시 꼭 총을 숨겨 갖고 다닌다고 했다.

지역 당국은 세미놀 하이츠 일대에 경찰관 수십 명을 24시간 배치했다. 연방수사국(FBI)과 주류·담배·화기·폭발물 단속국(ATFE)도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밤 박혼 탬파 시장은 "경찰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증거가 많지 않다"며 "범인을 반드시 찾겠다. 경찰은 그 때까지 이 지역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인 카탈루냐 '시민 불복종' 운동 확산

스페인 카탈루냐에서 중앙정부의 자치권 박탈에 저항하기 위한 '시민 불복종'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카탈루냐의 극좌 민중연합후보당(CUP)이 주민들에게 불복종 운동을 촉구한 가운데 교사, 학생, 소방 공무원 단체들도 뜻을 같이 하겠다고 나섰다.

CUP는 앞서 성명을 통해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의 자치권 몰수 조치는 1930년대 프란시스코 프랑코 군부 정권 이래 카탈루냐에 대한 '최악의 침략'이라며 "대대적 시민 불복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UP는 카를레스 푸지데몬 자치정부 수반이 소속된 카탈루냐 유럽민주당(PXCAT)과 자치의회에서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소수당에 불과하지만 분리독립을 추구해 온 집권 연정 중 강경파에 속한다.

라호이 총리는 지난 21일 비상 내각 회의를 통해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제한하기 위한 헌법 155조를 발동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자치정부를 해산하고 6개월 안에 조기 지방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라호이의 결정은 독재, 쿠데타와 마찬가지로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스페인 상원의 헌법 155조 포결이 예정된 27일에 하루 앞서 본회의를 열어 대응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모스크바 라디오 진행자, 괴한에 목 찢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23일 주요 뉴스라디오 방송의 부 편집장이 스튜디오에 쳐들어온 괴한에게 공격 당했다고 방송사가 말했다.

러시아의 유일한 독립적 라디오 방송으로 평가받곤 하는 예코 모스크바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한 남성이 사무실에 들이닥쳐 타티야나 켈렌하우어의 목을 칼로 찢었다고 말했다. 켈렌하우어는 인기있는 아침 뉴스쇼 공동 진행자로 이름이 높다.

공격 당한 부편집장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편집장이 트윗으로 전했다. 공격한 남성은 붙잡혔다.

러시아 검찰청 대변인은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자세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코 모스크바의 신랄한 비판에 기분이 상한 러시아 정부 인사들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이곳 방송 진행자와 기자들이 '복수 열박'을 받았다고 신고하기도 했다.

이 방송의 또다른 인기 진행자였던 율리아 라티니야는 지난달 차량이 방화로 의심되는 불이 난 뒤 러시아를 떠났다.

한편 러시아는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



깊어가는 가을 24일 경남 가창군 가창읍 의동마을을 찾은 어린이들이 노란 은행나무길을 뛰어 깊이가는 가을을 만끽하고 있다.

청령도 '꿀찌' 전남도, 공무원 범죄 90% 경징계

음주·성폭력도 '숨방망이'

청령도 진국 최하위 전남이 소속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 숨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여 간(2012년~2017년 8월) 공무원 범죄에 대한 징계처분이 대부분 경징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여 간 전남 범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모두 46건으로 음주운전 36건(특가법 위법운전치사사건 1건 포함)으로 가장 많았다. 성폭력(강제추행) 3건, 부패범죄 3건(뇌물수수, 금품향응, 공금횡령), 기타 4건이었다.

전남은 46건의 범죄 대부분에 대해 숨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데 그쳤다.

전체 46건 중에서 경징계 처분이 41건, 중징계는 5건에 불과했다. 10명 중 9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이다.

술자리에서 여성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했던 3건의 성폭력(강제추행) 사건 모두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36건 중 90%인 34건이 경징계 처분에 그쳤는데, 혈중 알콜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에도 모두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서도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소 의원은 "전남도 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대부분이 면죄부를 받는 숨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면서 "청령도 평가에서 종합청령도와 더불어 민원인의 평가항목인 외부청령도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이러한 전남 공직사회의 실태에 대한 불신이 이미 민연해 있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뼈를 깎는 조직쇄신이 없다면 추락해버린 도민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면서 "공무원 현장 실천경력이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하는 공무원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술선수범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전남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광주·전남 장기결석 학생 1441명 달해 10명 경찰에 수사 의뢰

올해 광주·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장기 결석한 학생이 144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시분당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3월2일~9월1일)에 7~10일간 장기 결석한 광주·전남지역 학생은 총 1441명으로 이중 347명(24.1%)이 학교에 복귀했다.

지역별로 광주는 연속 10일 이상 무단결석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각각 371명과 272명, 연속 7일 이상 무단결석한 고등학생은 75명으로 집계됐다.

학교에 복귀한 학생은 초등학생 32명, 중학생 8명, 고등학생 68명으로 전체 복귀율은 14.5%다.

전남지역 무단결석 현황은 초등학생 269명, 중학생 258명, 고등학생 196명으로 복귀 학생은 초등학생 64명, 중학생 42명, 고등학생 137명으로 전체 복귀율은 33.8%다.

장기 결석 학생 중 광주 4명, 전남 8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전남지역 학생 1명은 아직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학교와 교육청이 장기 결석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소재를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큰로시간 단축으로 가정은 행복해지고 청년에게 일자리가 생깁니다

장시간 근로 체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준수하면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